

#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창세기 12:1-5, 히브리서 10:12-14

정윤돈 목사님

\* **창12:1-5**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 **히10:12-14**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천하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 정, 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영원토록 행복 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인간들이 6가지, 12가지, 12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치를 알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다. 그 작은 순종과 결정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그 결정에 담겨 있는 가장 큰 복음적인 의미는 그 가나안 땅은 미래에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결정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이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적인 5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축복)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을 의미한다.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범죄 하였을 때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회복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오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질병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는 일과 같이 그리스도를 떠난 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후대들은 달라진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순종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장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과정 속에서 평생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결단 내고, 가나안 땅을 그리스도가 올 땅으로 생각하며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온 세상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광야, 포로, 속국생활의 과정이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나중에는 다윗과 같은 축복을 후대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당장 오직 예수로 결단하면 오늘부터 응답이 올 수도 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핑계대고, 남 탓하고, 열이 나고, 내 동기가 생기고 조금해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응답이 오는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다. 그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이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한다. 그 길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매 주마다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으로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면 결혼, 직장, 다 해결된다. 그렇게 다 있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들 중에는 과거 불신자상태에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과 습관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과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적인 기준, 수준, 표준을 복음적인 기준, 수준, 표준과 복음적인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신다. 주님이 주신 문제라면 그것도 감사하며 받는 것이다.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성공한 것인 줄 믿기를 바란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천 년이 넘는 동안 체질화된 유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못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새롭게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칠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 보냈던 것이다.

### 1.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과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일하거나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거나, 훌륭한 종교지도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불완전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많은 성인군자들처럼 착한 일, 바른 삶, 정의롭고 지혜로운 삶과 심오한 철학적인 금언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좋은 말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겠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넘어진다. 고쳐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때마다 오직 예수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 내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한 것이 감사하다. 그 때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없어.’ 라고 한다. 성경에 보면 남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자라고 했다.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는 자라고 했다. 우리도 똑같다. 빛이 임하면 더럽고 깨끗한 것이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구나.’ 알게 된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항상 감사해야 하는구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 구분이 된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기를 바란다. 이에 추가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갱신된다.

(2) 두 번째로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가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집으로,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로 표현하면서 집을 지으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3장 3절이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3)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히브리서 7장 4절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질 중 심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수없이 미리 알려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으로는 아무 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겠다.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복음과 그리스도)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너희들이 안식일, 절기, 십계명을 지켜도 중심이 변했는가. 변화되었는가. 더 악해지지 않았는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왔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거듭나는 줄 믿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히브리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1) 먼저 완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다.

① 첫 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정도의 분이시다. 이어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②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성막에서 드려진 제물은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참된 지성소인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막에 있는 속죄소가 아니라 천국 보좌에 올라가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하늘보좌)에 들어가셨느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끝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사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하신 희생제물이신 것이다.

(2) 다음으로는 충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①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시다.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구원자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②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신 줄 믿기를 바란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더욱 더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다음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①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과 그 후대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적 축복 5가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다.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어야 한다. 응답을 받으면 천국보다 이 땅이 좋다. 똑같은 땅인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한다. 그 기준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었는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갔는가? 이다. 지금 당장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마음으로 인정만 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의 축복이 달라진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밀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그 어떠한 문제와 고난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고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보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 ‘고문당하고 토굴이 같히고 사지가 찢기고 불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예수 믿어?’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믿음의 사람들과 그 후대는 5가지 모든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다. 여러분이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응답이 없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여러분과 후대들을 인도하신다.

②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예배시간에 모든 것을 결론내리고 얻어야 한다. 여기서 알려주시는 축복을 받고 제안을 끝내기를 바란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보좌의 축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③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전능자라는 의미이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전능하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3.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화와 삶에 대한 실천미션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서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간헐한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론으로 오늘은 CVDIP 와 그리스도로 끝낸 성도들이 받을 5가지 언약적 축복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과 근본적인 축복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2. Vision, 비전과 대표적인 축복이다. 우리들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제사를 찾는 것이다.
3. Dream, 꿈과 시대적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4. Image, 이미지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집중의 비밀인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인 집중, 윈리스 집중을 조금만 해도 미래의 응답이 앞당겨 올 것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과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를 조금만 실천해도 기념비적인 RUTC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설파하는데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영육 간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서 RUTC복음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날마다 행복한 응답받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